

## 암환자의 불안관리를 위한 이압요법 적용 효과

김 귀 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은 그 원인조차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전세계 인구 사망률 1위로, 이환율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망률이 2000년도 전체 사망자의 23.5%, 즉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첨단 과학의 발전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기술을 발달시켜, 암의 치유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암 진단이란 충격적인 사건 앞에 절망이 선행되어 소극적 대처와, 불안, 공포, 두려움, 분노, 죄책감, 투사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남은 여생을 죽음과 결부시키면서,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Ha, 2001; Song, 2001).

특히 암환자들은 치료와 더불어 질병경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고통스런 신체적 증상과 통증으로 인하여 격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Ha, 1982), 특히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초래되는 주된 부정적인 정서 반응은 불안과 우울이다(Craig & Abelloff, 1974; Lee, 2000). 암환자에게서 불안은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문제 해

결 능력을 저하시키는등 질병 경과 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Go & Kim, 1990; Song, 2000). Lee et al.(1988)의 연구에서도, 암환자의 정신과 자문 의뢰의 원인중 가장 높은 것이 불안, 우울감 순이었다고 하며 이들 환자 64%가 불안과 우울감을 조절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암환자의 적절한 치료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불안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Black & Champman, 1976; Carig & Abelloff, 1974), 현재 불안관리 측면의 부분으로 불안 감소를 위한 간호 중재 개발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Kim, 1991; Park & Suh, 1995; Park, 1992 ). 하지만 Lim과 Hong(1997)에 의한 암환자의 불안감소를 위한 간호중재 적용 실험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주로 사용된 간호 중재는 근육이완법, 교육, 정보 제공 및 지지요법으로,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일시적인 간호 중재 방법이 아니라 쉽고 간단하면서도 환자의 불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안으로 한의학의 이침요법(耳鍼療法)에 근간을 둔 이압요법(耳壓療法)의 개발을 고려하였다. 최근 대체 요법이 의료계의 새로운 지평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압요법은 인체 내부장기 생명활동의 축소판으로 관찰이 가능한 기관인 손, 발, 귀 중 귀(耳)에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투고일 2002년 4월 29일 심사외퇴일 2002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02년 12월 5일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해당 혈위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당 장기의 증상 완화 및 치료 효과를 꾀할 수 있는 한의학의 이침요법에서 유래된 변형요법이다. 문헌적으로 보면 이압요법의 주효과는 설사, 장기능 실조, 월경불순, 소화불량, 피부소양증, 유즙분비 촉진, 편두통, 불편증, 신경성 구토, 공포 및 불안등을 완화시킨다(Lee, 1992; Chae, 1994). 또한 이러한 이압요법은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은 독자적인 한방 간호 중재술로 간호사가 접근하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이압요법의 시술 방법인 패침 기간동안 환자 스스로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 매일 수회씩 안압케 하여 자극을 주게 함으로 불안에 대한 자가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압에 대한 임상효과를 검증한 연구 결과가 전무한 실정으로, 간호학에서도 Sok (2001)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편증 효과검정이 유일하다.

따라서 암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되는 불안으로 고통받는 환자결에서 세심하게 그들의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간호 중재술로 이압요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비침습적이고 간편하며 효과적인 이압요법을 간호 학문의 독자적인 간호중재 방법으로 개발시키는데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이압요법의 효과에 대한 문헌을 기반으로 본 연구를 최초로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암환자의 불안감소를 위한 간호중재로 이압요법 적용 후 그 효과를 검증하므로써 이압요법을 독자적인 간호중재방법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암환자의 상태불안정도와 기질불안정도를 파악한다.
- 2) 이압요법의 효과를 검증한다.

## 3. 연구의 가설

- 1) 제1가설: 이압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질불안점수가 낮을 것이다.
- 2) 제2가설: 이압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상태불안점수가 낮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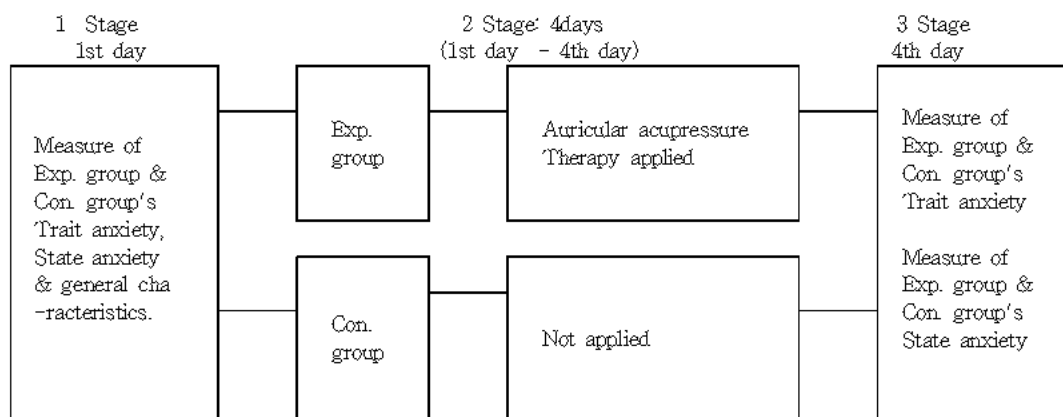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이압요법을 암환자에게 실시하여 불안감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설계(u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 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를 이용한 실험연구이다<Figure 1>.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K의료원 암병동에 입원한 환자 총 40명을 임의 선정하여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연구대상자 수는 Cohen의 공식에 따라 한,집단당 17명이면 가능, Lee et al., 1993)으로 임의 배정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앞으로 진단 받고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
- 2)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는 2기 이상의 치료중인 자



<Figure 1> Research Design

2002년 12월

- 3)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압요법 적용이 가능한 자
- 4)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자

### 3. 연구도구

#### 1) 불안정도 측정도구

- (1) 상태불안 측정도구 : Spielberg(1976)가 개발하고 Kim(1978)에 의해 번역된 상태 불안 측정도구로써 10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이었다.
- (2) 기질불안 측정도구 : Spielberg(1976)가 개발하고 Kim(1978)에 의해 번역된 기질불안 측정도구로써 10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질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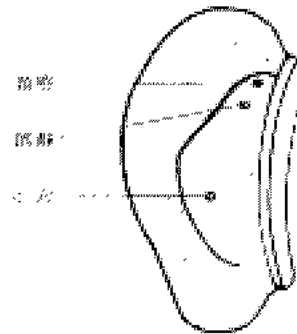
#### 2) 이압요법(처치도구)

한의학적으로 귀를 보면 신(腎)과 심(心)의 생리와 병리 변화는 모두 귀와 상통되며, 재내이 모든 경맥이 귀로 모여 중요한 생리적인 반응점이 되므로 이침 요법은 이개상(耳介上), 즉 귀에서 각종 질병의 반응점을 찾아 침으로 지르고, 쑥으로 뜨는 등의 자극을 주는 것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이 이론을 근거로 한 이압요법은 암환자의 지속되는 불안을 보다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압요법은 매침법으로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침(埋鍼)법 - 매침식 피내침(皮內鍼)을 썬서 이혈의 민감혈위에 자침하여 Surgical tape(반창고)로 고정시켜 3-5일간 매침(埋置)한다. 매침(埋鍼)기간중에는 환자로 하여금 이혈피내침을 매일 수회씩 안압케하여 자극(刺戟)을 가강(加強)하게 한다. 하절(夏節)은 감염(感染)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침(埋鍼)을 하지 않는다. 일부 만성질환 반복되는 질병에 사용된다.

적용증상 및 징후 - 설사, 불면, 편두통, 신경성 구토, 소화불량, 고열, 유즙부족, 장기능실조, 월경불순, 불안, 피부소양증으로, 본 그림은 불안 감소 혈위이다<Figure 2>.

Figure 2 Auricular acupressure point of Anxiety (耳壓穴位圖)



<Figure 2> Auricular acupressure point of Anxiety (耳壓穴位圖)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5월1일부터 6월 30일 까지 K의료원에 입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실시하였으며, 실험처치의 확산방지를 위해 대조군의 표집을 먼저 실시하였다. 측정과정에서 오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방법을 훈련시킨 연구 보조원이 이중차단법(double blind method)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하였다.

측정 첫날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일반적 특성과 기질, 상태 불안을 측정한 후 각각 훈련된 연구 보조자가 실험군에게는 불안의 혈위((경감(頸減), 진정(鎮靜), 심혈(心穴))에 해당하는 지점을 직접 압박 자극하는 이압요법을 4일째까지 매일 2-3회 실시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4일 째 되는 날 두 군에서 모두 기질, 상태불안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한 면담법과 병력 기록지를 이용하고, 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실험군의 경우, 처치전 후로, 대조군의 경우 연구 시작 첫날과 4일째 되는 날로, 실험군의 측정 일수와 동일하게 매칭하여 측정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즉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유사성 검증은  $X^2$ -test, t

- test로 분석하고, 이압요법의 효과 검증은 t - test로 분석하였다.

치료유무, 방사선치료유무는 두군 모두 받았으므로 자연 통제 가능하였으며 수술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P<.05)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 III. 연구 결과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건강상태,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직업에 따라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의 질병관련 특성인 약물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점수에 관한 동질성 검증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 두집단의 기질불안과 상태불안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기질불안과 상태불안의 평균점수가 두 군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어(p<.05) 실험전 기질불안, 상태불안은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Exp. group n(%)	Con. group n(%)	Total n(%)	$\chi^2$	p
gender	male	7(35%)	8(40%)	15(37.5%)	.353	.838
	female	13(65%)	12(60%)	25(62.5%)		
Age(yrs)	20-29	4(20%)	4(20%)	8(20%)	3.25	.197
	30-39	6(30%)	7(35%)	13(32.5%)		
	40-49	4(20%)	3(15%)	7(17.5%)		
	50-59	2(10%)	3(15%)	5(12.5%)		
	60-69	3(15%)	3(15%)	6(15%)		
	70-79	1(5%)	—	1(2.5%)		
Health status	good	11(55%)	10(50%)	21(52.5%)	5.00	.779
	moderate	7(35%)	7(35%)	14(35%)		
	poor	2(10%)	3(15%)	5(12.5%)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11(55%)	8(40%)	19(47.5%)	1.00	.607
	high school	6(30%)	10(50%)	16(40%)		
	university	3(15%)	2(10%)	5(12.5%)		
Marrigial status	single	3(15%)	3(15%)	6(15%)	2.00	.368
	married	15(75%)	16(80%)	31(77.5%)		
	separation by death	2(10%)	1(5%)	3(7.5%)		
Religion	christianity	9(45%)	8(40%)	17(42.5%)	5.296	.258
	buddhism	7(35%)	5(25%)	12(30%)		
	no religion	4(20%)	7(35%)	11(27.5%)		
Occupation	no occupation	2(10%)	2(10%)	4(10%)	1.090	.896
	housewife	11(55%)	10(50%)	21(52.5%)		
	salary man	5(25%)	6(30%)	11(27.5%)		
	officer	2(10%)	2(10%)	4(10%)		
Surgical therapy	have	8(40%)	4(20%)	12(30%)	.353	.838
	have not	12(60%)	16(80%)	28(70%)		

P <.05

<Table 2> Homogeneity test of anxiety befor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Exp. group(N 20)	Con. group(n 20)	t	p
	Mean±SD	Mean±SD		
State anxiety	69.25±3.61	70.95±4.91	-1.25	.220
Trait anxiety	66.15±1.87	66.15±1.84	.000	1.000

P <.05

2. 가설 검증

1) 이압요법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질불안 차이  
 “이압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질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1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체 평균 기질불안의 점수의 실험 전, 후 점수차 평균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이압요법 후 실험군의 기질불안 점수가 대조군의 기질불안 점수보다 현저하게 낮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t=8.086, p<.000$ )<Table 3>.

2) 이압요법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상태불안 차이  
 “이압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상태불안점수가 낮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 2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전체 평균 상태불안점수의 실험 전, 후 점수차 평균을 t-test로 분석한 결과 이압요법 후 실험군의 상태불안 점수가 대조군의 상태불안 점수보다 현저하게 낮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t=19.616, p<.000$ )<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는 암환자들에게 이압요법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측정한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느끼는 암환자들에게 이압요법을 실시한 결과 기질불안점수가 대조군은 평균 66.15점에서 67.50점으로 오히려 그 불안정도가 상승하였으나 이에 반해 실험군은 기질불안점수가 평균 66.15점에서 44.60으로 감소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암환자의 불안에 대한 이압요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태불안 또한 마찬가지로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70.95에서 72.45점으로 오히려 상승한데 반해, 실험군은 기질불안과 마찬가지로 평균 69.25점에서 31.95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암환자의 상태불안에도 이압요법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는 기질 불안과 상태 불안을 나누어서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기질 불안이 높을수록 상태 불안에 영향을 미침으로 각각의 불안 정도를 파악하므로서 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이압요법은 기질 불안과 상태 불안 모두에서 암환자의 불안 관리에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ea의 황제내경중 영추의 맥도편(1995)에서 신(腎)의 생리적인 변화와 병리적인 변화 모두가 귀와 상통하고 있다고 한 것과 심장의 생리와 병리변화가 모두 귀와 상통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절함으로써 인체의 여러 가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소문의 금계진언론(1995)과도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영추의 경락편(1995)에서도 또한 12경락은 모두 이부(耳部)에 이르러 유주 관계를 가지며 양경맥과 합쳐서 이부와 서로 통하며, 이부와 전신경락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귀의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여러 병리적인 증상 및 증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침습적인 방법이나 처방약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부(耳)의 혈자리를 지압하여 자극하는 이압요법을 통해 증상의 호전 및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서, 증상에 따라 귀의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암환자의 불안 관리를 위해 이압요법의

<Table 3> Differences of trait anxiety after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pre-treatment	post-treatment	t	p
	Mean±SD	Mean±SD		
Exp. group	66.15±1.87	44.60±11.65	8.036	.000
Con. group	66.15±1.84	67.50± 3.15	-1.594	.127

<Table 4> Differences of state anxiety after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pre-treatment	post-treatment	t	p
	Mean±SD	Mean±SD		
Exp. group	69.25±3.61	31.95±2.24	19.616	.000
Con. group	70.95±4.91	72.45±3.35	1.556	.136

효과가 유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암환자들의 불안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이 불안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보고되는 연구로는, 암환자의 대응양상과 상태불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Kim, 1999), 입원한 암환자와 일반환자의 지각되는 불안정도를 비교한 연구(Song, 1993), 암환자의 상태불안정도와 사회적인 지지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Park, 1992)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암환자의 불안이 환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암환자들이 삶의 질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암이라는 질병자체에서 오는 증상들까지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암환자의 불안을 실험처치를 중재로한 연구로는, Park과 Suh(1994)의 연구로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손마사지를 적용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불안감소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중재방법은 다르나 그 효과면에서 불안을 중재하는 연구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금까지 암환자들의 불안을 조사하거나 상관관계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에 비해, 불안을 관리 할 수 있는 간호중재로서, 특히 한국 고유의 독자적인 간호중재로서, 특히 적용시 비침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는 이압요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최근의 간호경향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과는 달리 인간을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 보고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독자적인 간호중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독자적인 간호중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는 단전호흡(Kim, 1993), 지시적 심상요법(Kim, 1996), 사상체질 식이(Mun & Jung, 1996), 요가운동(Lee, 1996), 기공체조(Lee, 1999), 경락마사지(Chai, 1999) 등이 있었으나, 이 연구들은 일반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재 또한 건강습생관리나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로 또는 이완요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인 간호중재를 적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적이며 독자적인 간호중재로서 비침습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이압요법을 간호중재로 적용한 연구로는 유일하게 간호학 연구로 Sok(2001)의 연구가 있는데 Sok(2001)은 노인들의 불편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압요법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수면이 증진되

고 수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여 이압요법이 불안의 완화 뿐만 아니라 수면양상의 변화에도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실험연구이며, 또한 암환자들에게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증상 및 치료결과, 정서적인 면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불안을 중재하기 위하여 이압요법을 적용한 연구로서, 그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이압요법이 한국 고유의 독자적인 간호중재로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은 다양한 연구들이 더욱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암환자들의 불안관리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안 관리에도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압요법을 적용함으로써 암환자의 불안감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 실험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K의료원 암병동에 입원한 암환자 중 총 40명을 선정하여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으로 임의 할당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불안측정도구는 Spielberg(1976)가 개발하고 Kim(1978)에 의해 번역된 기질-상태불안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각각 .87, .86 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두 군간의 동질성 검정은  $\chi^2$ -test와 t-test로, 가설 검정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가설 "이압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질불안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t=8.036, p<.000$ ).

제2가설 "이압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상태불안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t=19.616, p<.000$ ).

이 결과를 토대로 이압요법이 암환자의 불안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며, 이는 이압요법 효과가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암환자의 불안관리는 물론 모든 환자들의 불안관리에도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이로써 우리 문화경서에 적절한 고유의 독

자적 간호중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는 불안 도구로 심리적인 도구인 기질 불안과 상태 불안에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암에 대한 생리적인 효과 검정이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2. 불안관리를 위한 이암요법 적용연구를 만성 질환자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 References

Bae, B. C. (1995). *皇帝 內徑*. Seoul : Sunbosa.

Black, R., Champman, P. (1976). *SAD index for clinical assessment of Pain*.

Chae, B. W. (1994). *東醫 脈耳鼻咽喉科學*. Seoul : Gibmundang.

Chae, J. S. (1999). *The effects of meridian massage on the decreasing of blood pressure of the clients with hyperten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Crag, T. J., Abeloff, M. D. (1974). Psychiatric symptomatology among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Am J. Psychiat.*, 131, 1327.

Gotay, C. C. (1984). The experience of cancer during early and advanced stages : The views of patients and their mates. *Soc Science and Medicine*, 18, 605-613.

Ha, H. K. (1982).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hospitalized cancer pati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1(4), 665-673.

Hilton, B. A. (1993). Issues, problems, and challenges for families coping with breast cancer. *Seminars in Oncology Nur*, 9, 88-100.

Jung, D. J. (1996). *A Study of family support and depress mood of cancer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Kang, M. J. (1997). *A study of state anxiety and anxiety factors in intensive care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E. S., Han, S. H. (1995). Clinical review of auricular acupunture. *J Korean Acad Acupunture*, 11(2).

Kim, J. K. (1991). *Study of state anxiety and coping pattern in cancer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J. T. (1978). *Relation of Trait-Anxiety and soci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K. B, Mun, H. J., Sok, S. H, Hong, K. W. (1999). Literature review study about auricular acupunture therapy for oriental nursing intervention development, *East-west Nurs research*, 4(1), 66-76.

Kim, M. H. (1996).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quality of life on gastrointestinal cancer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N. C. (1993). *A study on effect on Dan Jeon Breathing method to reduce the blood pressure of the client with the essential hyperten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S. E. (1996). *The effect of Guided imagery on pain of delive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http://www.nso.go.kr/cgi-bin/sus-999.cgi>

Lee, B. K. (1992). *最新 耳鍼圖解處方集*. Seoul : Hyundai-accupunture center.

Lee, C., Shin, K. H., Back, I. H.(1988). Clinic study on psychological consult of cancer patient- pilot test. catholic cancer center complete works. 2(2), 22-27.

Lee, K. H. (1996). *The Effect of Yoga Exercise on the Relieve of Chronic Low Back Pai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Lee, M. S. (1999). *An Effect of Qi Gong Gymnastics Program on the Physiopsychological Parameter in Essential Hyperten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Lee, P. S. (2000). Spiritual care in hospic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3(1), 102-107.

Lewis, F. (1986). The impact of cancer on the family :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literature. *Patient Educ Counseling*, 8, 269-289.

Lim, S. O., Hong, E. Y. (1997).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J Korean Acad Assoc Nurs*, 27(4), 857-870.

Mun, H. J., Jung, S. J. (1996). Nursing Approach of four Constitutional Theory. *J Korea Com Health Nurs Acad Soc*, 10(1), 139-154.

Park, M. S. (1994). *The study on hand massage effect on radiational therapy cancer patient's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eoul University of Korea, Seoul.

Park, M. S., Suh, M. J. (1995). The effect of the hand massage on anxiety of the cancer patients receiving radiation treatment. *J Korean Acad Assoc Nurs*, 25(2), 316-329.

Park, S. W. (1992). *A study of state anxiety and social support in cancer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orea University of Korea, Seoul.

Sok, S. H. (2001). *Effect of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on insomnia of elderly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Song, J. Y. (2000). The Controlling of the symptom in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3(1), 93-95.

Spielberg, C. D. (1976). *Anxiety; current trends theory and research* ; America

Academy pres New York, 23-49.

- Abstract -

## The Effect of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on Anxiety of Cancer Patient

Kim, Kwuy-Bu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necessitat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as an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on cancer patients by confirming its effectiveness.

**Method:** The experimental study was unequivalently controlled pre-post measure study. The subjects were 40 cancer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K medical center in Seoul. The experimental group (20) and the control group (20) were randomly assigned. As measured tools, Spielberger's State-trait Anxiety (1976) measured tool by Kim's translation (1978). Th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was applied to experimental group, and the pre-post measure was performed to both group.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computer program that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 and t-test.

**Result:** 1)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showed lower trait anxiety scores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 $t = 8.036, p < .000$ ).

2)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applied th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showed lower state anxiety scores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 $t = 19.616, p < .000$ ).

This result showed that cancer patients with th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applied cancer patients decreased state anxiety and trait anxiety. Therefore, effectiveness of the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002년 12월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 anxiety of cancer pateint should be decreased and controlled by th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as independent nursung intervension. In addition, th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 will

provide effective independent nursing intervention that will decrease anxiety on patient with other disease and will improve quality of their lives.

Key words : Cancer patient, Anxiety,  
The auricular acupressure therapy